

02-3. Treatment of periodontal lesion caused by palatogingival developmental groove in maxillary lateral incisor: Case reports

김선아*, 이재목, 서조영, 박진우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상악 측절치는 해부학적인 변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며 특히 구개 치은 발육구의 유병율은 1.9~8.5%에 달한다 (Everett & Kramer 1972, Withers 1981). 구개 치은 발육구는 잔사 및 치태 축적의 통로로 작용하여 국소적인 치주 병소의 발생을 촉진하며 이러한 형태학적 이상은 치수와 치주 조직을 모두를 이환하는 병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Kovacs(1971)는 이로 인해 발생한 치주 병소는 상부의 접합 상피의 부착을 소실시키고 심부의 치주 조직을 파괴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아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개 치은 발육구로 인해 야기된 국소적 치주 병소를 치료하기 위한 접근법의 하나로 수복 치료를 통한 구개 치은 발육구의 폐쇄를 동반한 치주 판막술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본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상악 측절치의 구개 치은 발육구로 인해 중증의 치주 병소를 가진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막을 거상한 뒤 치근 활택술, 치아 성형술을 시행하고 Glass ionomer로 구개 치은 발육구를 폐쇄하였다. 술 후 3개월에서 2년 간의 평가 기간에서 탐침 시 출혈, 치주낭 탐침 심도 그리고 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하여 질환의 해소 여부를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상기 치료를 시행 후 평가 기간에서 탐침 시 출혈, 치주낭 심도 감소를 포함한 명확한 임상 지수의 개선이 관찰되었다.

결론

장기간의 예후 평가가 필요하지만 구개 치은 발육구로 인해 발생한 상악 측절치의 치주 병소의 치료에서 판막 거상을 통한 직접적인 수복과 치주 처치는 양호한 예후를 얻을 수 있는 접근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